

하야정국 첫 주말 촛불집회, 노동자가 앞장 선다

✎ 박성식 | ⓒ 승인 2016.10.29 17:28

| 철도, 버스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하야투쟁 돌입, 11/2일 비상시국회의 개최

#박근혜는_하야하라 철도노동자 긴급거리행진

파업 32일차 맞는 **철도노동자**들이
4시 광복로 시티스팟에서 결의대회 끝나고
부산 청년학생들과 함께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거리행진**하려합니다!
박근혜 하야를 위해 함께해주시시오!

29일 토요일 4시 30분
남포동 ABC마트 앞
남포동 7번출구로 나와 왼쪽으로 쭉!
(= 광복동 시티스팟)

전국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오늘 18시에 청계광장에 시민촛불이 모인다. 집회를 주관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올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각종 포털에는 '촛불집회', '청계광장'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 철도 등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하야투쟁

전국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하야행동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리지부는 오늘 3분간 버스경적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도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거리행진을 통해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서울에서는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다. 또 다른 파업사업장인 갑을오토 노동자들도 집단 상경 중이다.

- 민주노총 각급 조직 하야투쟁으로 결집

공무원, 교사, 철도노동자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대의원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박근혜 하야투쟁 긴급지침 1호'를 발동해 하야투쟁에 총력집중하고 12일 총궐기로 대거 집결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긴급지침 2호도 발표하며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서울과 영호남 충청권, 제주 등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의 하야촛불, 시국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 11월 1일 비상시국행동, 2일 비상시국회의 개최

민주노총은 가짜 대통령의 하야가 노동개악과 재벌중심 경제 등 양극화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고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일 청계광장에서 비상시국행동(농성)에 돌입하고 2일엔 전국 단위노조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하야투쟁의 방안과 결의를 모으고 조직적 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의 '하야 경적시위' 공지





사진/대구지역본부



사진 / 인천지역본부



사진 / 서울지역본부



사진 /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진 /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진 / 전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근혜정권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박근혜 퇴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공동 시국선언은 박근혜정권을 끝내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 시국선언에 꼭 함께해주시시오. (지회-지부로 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 선언자 명단은 11.4 기자회견/신문광고를 통하여 공무원-교사별 이름만 공개
- ✓ 선언문 보기 : <https://goo.gl/99vJ48>

박근혜 하야 투쟁 긴급지침 1호

1. 모든 지부·지회는 임단투를 제외한 일상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박근혜 하야투쟁에 총력 집중한다.
 2. 모든 지부·지회는 대표자, 대의원이 참여하는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각종 언론에 게재하며, 현장과 지역에서 다양한 실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3. 각 지부·지회는 전·현직 대표자 및 모든 현장단위와 함께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11월12일 민중총궐기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4. 지역별로 진행하는 '박근혜 하야 촉구 범시민 촛불집회'에 시민과 학생,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한다.
 5. 전국 지회장은 11월2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주노총 비상시국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 ※ 투쟁기조와 요구를 담은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11월1일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지침 2호로 내린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구

현대자동차지부 시국선언문

박근혜정권 최순실게이트가 하나하나 밝혀지며 허수아비 박근혜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청와대 최측근 비서관들이 주요인사를 결정하는 청와대 내부문제에서부터 외교, 국방,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기밀문서를 한낱 개인의 손을 거쳐 결정되어왔던 지난 4년간의 실태가 날이 밝혀지고 있다.

'수렴청정'을 통해 국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박근혜 보수정권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이다. 한 언론사가 밝힌 국가기밀문서 개입여부의 실상을 보면 일본과의 독도문제를 놓고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면 '미소로 답하라'는 예상 질의 문답지까지 최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경악을 금치 못할 대목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전경련과 현대차, 삼성 재벌들까지 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헌납한 것은 단순히 개인비리를 넘어선 또 다른 의혹이 숨어있음을 짐작케 한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일동은 박근혜 보수정권의 노동법개악 정치는 재벌들이 상납한 헌납금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저성과자를 강제 퇴출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음을 잘 알기에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통상임금 범위축소 등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노동법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린 모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해야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제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10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일동



멘붕 박근혜 "#최순실은 어디에?"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